

문학과 철학의 관련양상

임 재 해

<목 차>

- | | |
|--------------------------|---------------------|
| 1. 분과학문과 전공에 대한 편견 | 4. 문학과 철학에서의 인식과 표현 |
| 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
학관 | 5. 문학작품의 내용과 철학적 문제 |
| 3. 문학과 철학에 관한 정의들 | 6. 문학연구의 방법과 철학적 논리 |
| | 7. 논의의 마무리 |

1. 분과학문과 전공에 대한 편견

철학과 문학, 참으로 큰 이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들뜨게 하고, 그 이름이 감싸안고 있는 크기와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부담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들뜬 상태에서 이 이름들을 대할 수 없고 이 이름들 앞에서 미리부터 주눅 들어 있을 필요도 없다. 들뜬 마음을 잡아서 가라앉히고 주눅든 기를 날카롭게 세워보아도 이 이름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살핀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험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험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작업이 가지는 한계는 다음 연구를 자극하는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으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깨치는 데에도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참다운 앎을 열렬히 추구하는 철학정신을 실천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으레히 특정한 분과학문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과학문과의 이러한 관련은, 남으로부터 해당 분과학문을 전공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하며, 스스로도 그 분과학문의 전공자로 행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전공하(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분과학문의 이름들을 주고 받는다. 전공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과 단위로 조직되

어 있는 분과학문을 일컫는 것이나, 더러는 그 분과학문의 세분된 분야를 한정해서 일컫기도 한다. 어느 쪽을 두고 일컫든지간에, 전공이라는 말은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첫째, 특정 학문을 전공하는 탓으로 다른 학문의 분야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식의, 자기 무지에 대한 변명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둘째로는 특정분야에 대한 논의는 그 분야의 전공자인 자신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몰아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무리하게 합리화시키려는 두기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러한 편견에 입각해서 전공이 분과학문별로 표시되고 문제된다면, 대학의 분과학문 또는 학문의 조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대상은 본질적으로 조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런 삶처럼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온 삶의 문제가 전 영역으로서 통털어 학문의 대상이긴 하되, 이를 한꺼번에 연구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세분된 분과학문으로 나누어서 학문활동을 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자라고 하여 문학 자체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만족할 수 없으며,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제 문제와 더불어 문학을 통해서 인식하고 해명할 수 있는 삶의 문제들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들과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모든 분과학문에 대한 이해가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결국 분과학문이란 것은 궁극적이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문활동을 위해서 마련된 편의상, 제도상의 무엇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논의는 한편으로는 분과학문 사이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벽을 허물어 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벽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쌓으려는 작업이다. 말을 바꾸면, 분과학문끼리 서로 넘나들면서 교류를 하되 벽을 의식하면서 넘나들고, 벽으로서 경계삼되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내고 여닫을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이렇게 분과학문 사이에 벽과 통로가 더불어 있다는 것은 모든 학문이 일정한 관련성 속에서 독자성과 개별성을 지니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걸려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우쳐 주는 셈이다. 이미 발표한 ‘역사의 이해와 문학의 역사적 연구’¹⁾

1) 林在海, ‘歷史의 理解와 文學의 歷史의 研究’, 정진문화연구, '83 겨울호(韓國 精神文化研究院, 1984), 26~40 쪽.

도 문학과 역사학 사이의 이러한 문제를 다룬 것이다. 여기서는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철학 사이의 관련양상을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철학자들에게서부터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다. 우선 그들의 문학관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가다듬어 보기로 하자.

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학관

문학에 대한 철학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은 이른바 ‘시인추방론’을²⁾ 역설한 플라톤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따라서, 문학과 철학의 관계는 불행하게도 문학을 가장 부정적으로 다룬 플라톤의 문학관에서 처음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명저 「국가」를 통해서 그의 문학관, 즉 시인추방론을 살펴 보면, 시인은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대상을 모방하는 자로서 ‘이상국’에서는 추방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³⁾ 시인이 비난받는 이유는 모

- 2) 플라톤의 문학관은 「國家」 2 권 17 장에서부터 비롯된다. 음악에 관한 대화 중에서 이야기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면서, ‘훌륭한 얘기는 장려하지만 그렇지 못한 얘기는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이상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얘기하는 사람을 감시해야 한다.’ (國家, 2 권 17 장)는 것으로 말머리를 잡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란 에시오도스와 호메르스와 같은 시인을 일컫는 것이며, ‘얘기’는 이들의 시를 뜻하는 것이다. 이 대화는 음악에 관한 대화와 더불어 3 권 12 장에서 끝나는 데, 구체적으로는 호메르스의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인용 거론하면서 잘못된 관념, 고쳐야 할 내용, 반대로 받아들여야 할 논리, 거짓된 사실, 빼 버려야 할 부분, 사람들에게 해악을 미치는 집 등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다. 흔히 이런 사실을 들어 플라톤의 문학관을 곧 ‘시인추방론’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즉, 그의 문학론은 ‘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 (國家, 3 권 6 장 서두)이며, ‘시인들을 감동해서 그들의 시 안에다 선량한 성향을 담은 것을 지어 넣도록’ 하려는 것 (國家, 3 권 12 장)이지, 문학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이상국에서 시인을 추방하려는 것은 아니다. Platon 저, 趙宇鉉 역, 國家(三省出版社, 1976), 81~115 쪽 참고.

- 3) 대부분의 문학자들, 특히 조웰(Jowett), 보잔케(Bosanquet), 크로체(Croce) 등은 플라톤이 이상국가로부터 시인을 추방한다고 의심없이 깔쌈했다. 그러나, 콜링우드(Collingwood)는 플라톤이 모든 형태의 시를 공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시인을 추방하려 들지도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선량한 사람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시인들은 이상국 안에서 보류되고, 시인이라고 할 수 없는, 하잘것 없는 사실들을 기교적으로 저미있게 재현하는 데능인들에 국한된 추방이라는 것이다. R.G. Collingwood, *The Principles of Art*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46~52 쪽 참고.

받자라는 사실에 있는데, 시인이 그렇게 규정되어야 하는 근거는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 즉 ‘이상국’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국’에서는 진리가 이념이 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 때의 진리는 사물 속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실재의 세계인 것이다. 실재의 세계는 다만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이데아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언제나 보이는 현실세계만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세계는 모두 진리의 그림자이고, 시인은 이 그림자를 다시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진리를 이념으로 삼는 ‘이상국’에서, 허상의 허상단을 그려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인이 추방되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시는 교육적 가치가 없고 인기를 노리는 모방적 영혼의 합리적 원리에 만족을 주는 것이며,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조장하여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쾌락성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취한 교육적, 형이상학적, 윤리적, 정치적인 제 관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냉정한 결론에 따라,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에 플라톤의 견해를 이용해서 초기 기독교회의 문학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기까지 했다.⁵⁾

플라톤이 시인을 저주하고 이상국에서 시인을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 아테네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아테네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제공하는 기강과 이상이었던 때문이다.⁶⁾ 그러나,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들을 거두어 들이던

4) 버어넨 홀 2세(Vernon Hall, Jr.)는 자신의 문학비평사에서, “플라톤에 따르면, ……시인이 한 침대를 기술할 때 그는 도조들을 모방하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진리 혹은 실재로부터 2도나 거리가 멀어진다. 시인의 예술이란 ‘열등자와 결혼하여 열등한 자식을 낳은 열등자이다’.”라고 했다. Vernon Hall, Jr. 저, 李在浩·李明燮 공역, 西洋文學批評史(探求堂, 1972), 14 쪽.

5) 버어넨 홀 2세 저, 李在浩 外 역, 주 (4)의 책, 11~12 쪽 참고.

6) 아테네인들이 철학자들의 이상을 특히 필요로 했던 것은, 이 때 이미 아테네는 멸망으로 다름질치고 있었고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성실하지 못한 선동가들에 의해 양처럼 끌려가고 있었으며, 포탄인들은 종교로서 호메르스에 묘사되어 있는 거짓말쟁이 및 싸움쟁이인 신과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어넨 홀 2세 저, 李在浩 外 역, 주 (4)의 책, 12 쪽 참고.

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시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는 그의 말은 단지 일반적으로 인생의 아주 특수한 면만을 모방하는 것이므로,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라는 견해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철학적 보편성과 문학의 보편성을 구별하여 뒤의 것을 개연성이라 하였는데, 이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 문학관의 핵심이자, 일반적으로 문학이론의 근본개념의 하나를 이룬다.

플라톤에 있어서 모방은 ‘사물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를 모방하여 그것이 구체적인 공작물이 되고, 그것을 다시 모방하여 예술품이 되는 그런 모방의 개념을 상정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모방은 ‘사물의 과거나 현재의 상태, 또는 사물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생각되는 상태,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인의 기능은 실지로 일어난 것에 관여하지 않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즉 개연성과 필연성의 법칙이 가능한 것에’ 근거한다는⁷⁾ 사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의 모방은 같은 것의 생산이 아니고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새로운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모방에는 예술의 창조적 성격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플라톤의 문학관은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부터 극복되고 부정적으로 계승되긴 했으나,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문예란 허상을 만들어내는 모방술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 뿐만 아니라, 이때아의 직접적인 파악을 지향하는 철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들은 문학을 철학과 나란히 문제삼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즉, 철학은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문학은 모방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이해됨으로써 문학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철학중심의 가치평가에서 온 편견이라고 하더라도, 문학과 철학에 관한 변별적 요소들을 일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수 있다.

철학은 이성적인 것인데 문학은 감성적인 것이라는가, 철학은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인데 문학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또는 철학은 이미 있었거나 있는 것의 실체를 탐구하는 것인데 문학은 장차 있어야 할 것이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개연성과 필연성에 입각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할

7) 버어넌 홀 2세 저, 李在浩 外 역, 주 (4)의 책, 23 쪽.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철학 중심의 문학관이 시인을 주방하기에 이르고 문학을 진리의 2차적 부속물 정도로 격하시켰지만, 그 주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두 측면의 사고방식과 문제인식의 시점 및 지적 욕구의 방향에 걸려 있는 문제들, 즉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깨우침,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기된 의문을 풀어보려는 탐구욕구와 인식한 문제를 새롭게 나타내려는 표현욕구 등을 철학과 문학은 제작기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독자적 의의를 동등하게 지니고 있는 셈이다.

철학자들 중심의 문학관이 빚어낸 편견이 이처럼 객관적으로 수정되어 정리될 수 있다고 해서, 문학과 철학의 관련성이 온전하게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이 논의로 인하여,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살피는 주관적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식을 다지는 한편, 양자의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는 가장 진부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거듭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3. 문학과 철학에 관한 정의들

철학과 문학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철학은 무엇인가?’, ‘문학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 관한 해답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 논의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문학은 이러저러한 것이며, 철학은 저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요모조모 따져서 창조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며, 또 반드시 그렇게 잘 다듬어진 하나의 대답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도 아니다. 학계의 사정은 어느 쪽이든 아직 이와 같은 물음을 계속해서 되묻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나서야 할 판이므로, 이미 거론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의가 진행되는데 따라 철학과 문학은 상호관련성 속에 새롭게 그 개념이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은 (가) 지혜의 애호,⁸⁾ (나) 우주와 인생에 대한 집약된 생각, (다) 인간의 현존재에 대한 자기 규정, (라) 역사적 지평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

8) 철학(Philosophy)을 뜻하는 그리스어 Philosophia는 사랑이라는 뜻의 Philos와 지혜라는 뜻의 Sophia의 합성어이므로, 흔히 철학은 애지(愛智), 즉 지혜에 관한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듬어진 생각의 다발,⁹⁾ (마) 인간사고의 기본적인 양상이나 논리를 개별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에서, 우연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필연적인 문제에서 생각하는 것, (바) 특수한 것, 부분적인 것, 이러한 끝없는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존재자재를 탐구하는 것¹⁰⁾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 바 있다.¹¹⁾ 이들 규정 가운데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탈틀이도 있고 개론서에서 흔히 거론되는 사전적인 정의도 있으며, 어떤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논문에서 인용된 것도 있다. 어느 쪽에 속하든 이러한 정의로서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온전하게 풀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철학의 개념은 몇 마디 말로써 쉽게 정의될 수 없다는 정의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철학의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심지어는 동시대의 같은 학자일 경우라도 그 필요성이나 입각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환경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어 왔고 인접 학문의 성장에 따라 규정을 수정해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해결의 시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며, 새로운 삶의 조건 아래서 생긴 새로운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철학자들은 그 때마다 문제의식을 달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철학이란 무엇이나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아주 다른,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해답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무엇을 철학으로 보느냐, 혹은 시조에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철학의 전 내용을 방황잡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에 있어서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이 철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도달점이 되기도 한다.

문학은 (가) 언어예술, (나) 삶을 인식하고 경험을 해석하는 특수한 구

9) 이명현, '한국철학의 전통과 과제', 한국의 민족문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314쪽 참조.

10) '바'의 정의는 세계철학대사전(교육출판공사, 1980), 1072쪽에 인용된 야스퍼스(Jaspers)의 정의를 재인용한 것이다.

11) 위에서 인용된 몇 개의 정의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론서나 입문서 등 필자 주위에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임의로 뽑은 것이므로,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는다. 이에 대한 양해를 바란다.

조,¹²⁾ (다) 말에 의하여 선택된 사회의 양상을 형상화한 것,¹³⁾ (타) 인간 최고의 사상과 감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교훈이 아닌 쾌락을 목적으로 삼은 것,¹⁴⁾ (마) 언어로써 이루어진 인식이며 형상,¹⁵⁾ (바) 가치 있는 인간 체험의 요소를 질서있게 배열하고 조직적으로 기록한 것 등으로 정의된 바 있다. 여기서 인용된 정의들 가운데에는 그 자체로서 미흡한 것이 있어 몇 가지 개념들은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도 있고, 그러한 정의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이 덧붙여 설명되어야 할 것도 있다. 더러는 작가의 입장에서 창작의 측면을 강조한 것도 있고, 독자의 입장에서 수용의 측면 또는 그 효용을 문제삼은 것도 있는데, 이는 문학을 규정하는 입각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의 정의는 어떤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참으로 까다로운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같이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과학처럼 똑같이 판단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감정이나 정서에 따라 문학작품에 대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문학은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힘드는 것이다. 더구나 시대에 따라서, 유파나 사조에 따라서 문학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인식됨으로, 문학은 작가가 쓴 작품 자체라고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¹⁶⁾

지금까지 거론된 철학과 문학에 관한 정의들보다 한층 명쾌하고 타당한 정의에서 이러한 논의에서는 반드시 인용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의 자체를 통해서 철학과 문학의 관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므로, 정의 한둘을 더 들거나 말거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어느 정의나 일면적인 의의와 한계를 함께 지닌 것이므로, 하나씩 들어서 점검하고 비판하는 번거러움을 피하면서, 이들 정의를 하나의 다발로 삼아 공통분모를 뽑아냄으로써 일정한 준거에 의하여 문학과 철학의 관

12) 朴喆熙, 文學概論(螢雪出版社, 1975)의 序文.

13) 李商燮, 文學批評用語事典(民音社, 1976), 77 쪽.

14) '라'의 정의는 崔載瑞, 文學原論(春潮社, 1957), 3쪽에 인용된 드·퀸스(De Quency)의 정의를 재인용하면서 다듬은 것이다.

15) 조동일, 문학연구방법(지식산업사, 1980), 140~148 쪽을 참조하기 바람.

16) 장 리카르두(Jean Ricardou)는 한 토론회에서 "그들을 몰랑 바르트처럼 작가라고 부르고 그들이 쓴 것을 문학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현 역,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현·金柱演撰, 文學이란 무엇인가(文學과 知性社, 1976), 56 쪽.

관양상을 상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학과 철학에서의 인식과 표현

어느 정도 추상적이긴 하나, 이들 정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이끌어 낸다면, 철학은 삶의 문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논리적 표현이고, 문학은 삶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 인식의 형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삶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공통점을 들 수 있는데, 이 때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면서 외 사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삶의 함의와 의의를 문제삼는 물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인 물음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나 물음에 입각해서 사람과 자연, 현실과 이상,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다루길 하되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철학과 문학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포괄적인 삶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결과가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표현되는 것이 철학이라면, 문학은 구체적인 삶에 대한 창조적 인식의 결과가 예술적인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철학은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포괄화하여 파악한다면, 문학은 보다 현상적으로 구체화하여 파악하며, 철학이 논리적인 체계화를 요구한다면 문학은 창조적인 형상화를 요구한다. 체계화는 삶의 문제에 대한 추론적인 해결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나, 형상화는 이에 대한 구상적인 표현에 그친다. 추론적인 해결은 논리성에 입각한 설득력이 있어야 가치를 지니고, 구상적인 표현은 예술성의 입각한 창조적인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가치를 지닌다. 철학적 설득력은 의식적인 공감이며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라면, 문학적 공감은 무의식적인 설득이며 정서적인 느낌이나 감정이입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문학을 사상적인 측면이 한정해서 문제삼으면 철학과 같은 문제에 도달할 수 있으나, 문학의 사상성은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정립시키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문학적 인식과 표현의

17) 이 점은 문학이 가지는 ‘심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르네 웰렉은 이것이야말로 문학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다. “Here the criterion is either aesthetic worth alone or aesthetic worth in combination with general intellectual distinction.” René Wellek and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Third Edition, 1963), 21 쪽.

논리에 근거를 두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문학에 나타난 사상은 정립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공감의 방식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전이되어 버리는 것이므로, 정립되지 않은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사상보다도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문학을 비롯한 예술 일반의 본질적 속성인 것이다.¹⁸⁾ 의식적으로는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상이라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서 표현될 경우, 거부할 겨를도 없이 의식의 뿌리를 흔들려 버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배어들고 마는 것이다. 이 점이 예술적인 공감력의 발휘이자, 문학이 지니고 있는 형상적 표현의 기능이다. 이에 비하여, 철학에서 문제되는 사상은 일정한 체계와 논리를 명료하게 갖추어야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철학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고 문학이 예술적 공감력을 잃게 되면 각자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수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아도, 철학과 문학에 대한 수용의 방식이나 수용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철학은 수용자의 이성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므로, 수용의 결과는 항상 일정해야 한다. 다만 논리적 모순을 발견한 수용자는 설득당하지 않고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수용자는 설득당하는 정도이므로, 긍정과 부정의 이원적 수용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문학은 수용자의 인간적 감성에 의한 느낌으로서 받아들여지므로, 수용자마다 느끼는 바가 일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학에서는 표현의 애매모호성이나 해석의 다의성, 또는 분위기 전달의 암시성이 오히려 문학적 예술성을 높이 획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은 정교한 논리로서 수용자로 하여금 일치된 결론에 이르도록 설득을 시키는 데, 문인들은 오히려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을 의도적으로 기대하면서¹⁹⁾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을 은밀하게 배치해 두는 것이다.

수용의 결과가 삶의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문학과 철학은 갈라져 있다.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18)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藏産業社, 1978), 18쪽.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상이라면 정립되지 않은 채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립되지 않은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사상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문학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19) 심지어는 독자의 오해를 계획적으로 유발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독자는 이해 불가능하도록 하기까지 한다. 李箱이 고의적으로 띄어 쓰기를 하지 않는다는가 ‘鳥瞰圖’ 대신에 ‘鳥瞰圖’로 표기한 것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일반화시켜 놓은 것이라면, 문학은 삶의 일반적인 문제를 예술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다. 즉, 철학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되 구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타당한 삶의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데 대하여, 문학은 보편적인 원리와 일관된 하나의 삶에 바탕을 두되 시공간적 상황의 제약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므로, 수용자는 철학에서 체제화시켜 놓은 일반화의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절히 응용하려 들 것이며, 문학에서 형상화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오히려 포괄적인 삶의 문제를 인식하려 들 것이다. 결국 수용자의 인식태도는 궁극적인 것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는 궁극적인 것으로 삶의 문제와 관련 짓고 있는 셈이다.²⁰⁾

5. 문학작품의 내용과 철학적 문제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활동과 그 작품을 연구하는 활동을 함께 일컫는다. 그러므로, 문학의 어느 쪽에서 철학과의 관련성을 살피느냐에 따라, 그 관련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문학작품의 내용과 철학의 내용 및 문학적 언어와 철학적 언어의 관계가 관심을 끌 수 있다.

문학작품은 그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는 물론이고 의인화된 동물이나 어떤 특수한 생명체, 심지어는 무생물인 경우라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관한 서술인 것이다. 삶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했던간에 넓은 의미로서의 철학이 내재하지 않는 삶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철학을 완전히 배어놓은 문학작품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작품의 가치가 작품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철학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학작품의 독자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예술성을 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철학적 언어는 과학적 논리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문학적 언어는 예술적 형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철학적 문제의식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예술적 형상성에 의하여 문학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이 삶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것인 한 공허한 언어유희로서만 가치 결정이 이

20) 달리 말하면, 철학이 연역적 수용을 필요로 한다면 문학은 귀납적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어질 수 없으므로,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더불어 문제되어야 한다.

철학이론을 염두에 두고 문학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더라도 문학작품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를 찾아보려는 경우는 이미 오랜 전통이 되어 왔다. 따라서, 작가는 의식적으로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선과 악, 현연과 윤리 문제에 얽힌 인생과 우주에 관한 창조적 인식을 작품을 통해서 형상적으로 표현하려 들고,²¹⁾ 독자 역시 가능하면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철학적 견해를 새롭게 얻어보고자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표현을 근거로 철학이론의 가치를 결정하려드는 경우는 극히 예외일 수 있지만, 철인들 또한 문학적 형식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사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예술적 형상성을 중심으로 철학적 인식의 깊이를 문제삼기도 한다.

표현의 문제로 한정해 본다면 과학적 논리성과 예술적 형상성에 따라서 철학과 문학이 갈라져 있으나,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철학과 문학이 제각기 통일된 내용과 표현양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양자가 서로 엇갈려서, 철학적 인식이나 견해가 예술적 표현을 빌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용이 지닌 사상적 깊이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느냐, 표현의 예술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철학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다.²²⁾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관계는 동일인물의 저작에서 제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괴테의 ‘파우스트’

21) 콜링우드는, 자기가 “어떤 시인이든, 자기의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리하여 그의 시는 이 체계를 상설(詳說)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도덕의 원리로서, 지적으로 이해된 가족이라는 관념을 떠나서는, 리어왕의 비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며, “시인은 사상 자체를 정서 속으로 융합시킴으로써, 즉 일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후에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R. G. Collingwood, 주 (3)의 책, 294~295쪽 참조. 번역은 文貞復 역, 藝術의 原理(蜚雪出版社, 1982), 314~315쪽에서 참고했다.

22) 콜링우드는 문학과 철학의 차이를 논의하는 가운데, 훌륭한 철학과 훌륭한 문학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철학적 견해와 표현양식이 한 전에서 만나므로,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다음의 결론에 이른다.

“Good philosophy and good poetry are not two different kinds of writing, but one; each is simply good writing. In so far as each is good, each converges, as regards style and literary form, with the other; and in the limiting case where each was as good as it ought to be, the distinction would disappear.” Collingwood, 주 (3)의 책, 298쪽.

나 단테의 ‘신곡’은 심오한 철학적 세계관을 함축한 철학적인 문학이고,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높은 예술적 형상성을 획득한 문학적인 철학인 것이다.

철학과 문학이 이처럼 제휴될 수 있으나,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철학과 문학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만약 문학이 철학적 사고의 표현 수단이라면 구태어 허구적으로 복잡하고 긴 문학작품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간단하고 명료한 철학적 표현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현에 동원되는 언어를 두고 양자의 차이를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문학과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똑같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문학의 언어가 서술적인데 비하여 철학의 언어는 분석적이라는 데 있다. 문학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데 언어를 동원한다면, 철학은 어떤 대상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그것을 묘사하는 서술 언어의 의미, 그리고 그 언어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언어를 동원한다. 그러므로 철학은 ‘언어에 대한 언어’, 또는 ‘이차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³⁾ 달리 말하면, 철학적 언어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대상을 직접 서술하는 문학은 언어 또는 개념의 분석으로서 존재하는 철학과 구별되는 것이다.

동원되는 언어의 자질상 문학의 언어는 철학의 언어가 될 수 없지만, 문학은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서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닥뜨리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애써 묘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치열하고 묘사의 태도가 진지할수록 철학성을 내포하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철학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나, 철학적 언어와 방식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학도 그 자체로서 바로 철학일 수는 없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문학작품 속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문학에 관한 철학, 즉 ‘문학철학’을 성립시키기도 한다. 이 때 문학철학은 예술철학의 일부이면서 학문으

23) 철학을 ‘이차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문학은 ‘이중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은 언어로서 이루어진 형상이면서 인식이므로, 나타난 그대로의 형상적 의미와 숨은 뜻의 인식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의 관계에 따라 우의, 비유, 상징, 역설, 반어와 같은 특수한 표현방법을 지닌 것이 문학적인 언어인 것이다. 형상으로서의 의미와 인식으로서의 의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조동일, 주 (15)의 책, 148~154 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로서의 문학연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6. 문학연구의 방법과 철학적 논리

철학한다는 것은 철학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문학한다는 것은 문학이 무엇인가에 관한 탐구 없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곧 문학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으로서 문학이 무엇인가를 해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연구하는 일종의 체계적 학문으로서 문학연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문학연구는 문학작품과 달리 철학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같은 방식으로 해답을 이끌어낸다. 철학이 직접적인 대상으로서는 파악될 수 없는 초월적이며 전체적 존재로서의 ‘포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대상적 학문이라고 한다면,²⁴⁾ 문학은 구체적인 작품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물음과 대답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대상적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니는 것인 한편, 문학연구는 묘사와 서술로서의 형상적 표현이 아니라, 방법과 이론을 갖춘 분석과 해명으로서의 체계적 논술이다. 그러므로, 학문으로서의 문학연구는 문학작품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철학의 문제와 닿아 있는 것이다.

철학은 어떤 지각된 현상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을 과학자처럼 직접 설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누가 어떤 대상을 무엇무엇이다, 또는 어떠한 어떠한 것이 옳다고 할 때, 철학은 그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분석적 작업이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을 묘사하는 서술적 언어에 의한 문학작품과는 엄격히 구별될 수 있지만, ‘문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문학작품의

24) 철학이 대상적 학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증과학 및 형이상과학도 구별된다.

“과학과 형이상학은 바로 *Physics*와 *Metaphysics*라는 어원이 시사하듯이 경험의 방법이 다를 뿐 다같이 대상적인 지식이지만 철학은 도대체 대상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여 우리는 철학을 대상적·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주체적 인식으로 규정하려 한다. ‘주체적 인식’이란 대상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아님은 물론이요 ‘내적 자연’ 또는 ‘심리현상’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주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객관적 인식이 아니다.”고 한 것은 철학이 무대상적 학문임을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밝힌 것이다. 申午鉉, 『韓國哲學思想研究의 方法論的 反省』, 韓國學研究의 成果와 그 省察(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24쪽.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가?’, ‘문학작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물음을 제기할 때, 우리는 이미 문학의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테두리로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문학연구가 철학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삶에 관한 문제와 주장들을 잘 이해할 때 작품이 가지는 미학적 사상적 가치가 보다 논리적으로 해명될 수 있고, 그 예술적 성취도 체계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문학작품은 삶의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형상화하여 독자로 하여금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문학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낱말이 분석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해명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의식적인 깨침에 이르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연구할 때는 자연히 철학적인 문제를 철학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철학적으로 기술해야 한다.²⁶⁾ 특히 위대한 작품의 경우는 더욱 철학적인 문제와 방법으로 연구자를 이끌어들인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과 ‘카르마조프의 형제’ 등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다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푸르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통해서 초시간적 심볼리즘의 수법으로 시간의 문제에 대한 그의 새로운 철학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구토’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인간의 존재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려면 철학적 사고와 논리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작품의 내용이 철학적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한 문학연구는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연구의 의의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생을 탐구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 대한 방향설정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연구가 문학적 원리의 해명에 만족하지 않고 문학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 전반을 비판하고 점검하는 임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임무의 완

25) “작품에 표명된 철학사상을 찾는 작업이 작품의 창작 동기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임은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연구는 이미 널리 성행하고 있다.”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知識産業社, 1977), 9 쪽.

26) “철학적 문제의식에 대한 자각이 깊을수록 문학연구는 심화될 수 있고, 철학적 근거가 타당성을 가져야 문학연구가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趙東一, 주 (25)의 책, 10 쪽.

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세계관과 방법론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²⁷⁾ 이것이 없으면 문학연구는 뿌리없는 삶의 허상을 쫓는 데 그칠 염려가 있다. 철학은 이러한 세계관과 방법론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문학연구는 철학적 기반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법론에 입각하지 않은 문학연구는 일종의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연구는 연구방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연구방법은 어떤 대상을 다룰 수 있도록 추출된 결과이나, 연구방법의 원리는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거나 전제이다. 즉, 문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문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연구방법이라면, 문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어떤 철학을 근거로 처리하는 것이 연구방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²⁸⁾ 연구방법은 철학적 근거를 논술하지 않거나 논술할 수 없는 경우이나, 연구방법의 원리는 철학적 근거를 찾아내어서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즉, 연구방법의 원리는 철학적 용어와 논리적 체계를 통해서 논술되는 것이므로, 문학연구 방법이나 이론의 창조적 수립은 본질적으로 철학적 세계관과 사고체계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학비평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학비평의 태두로 삼는 플라톤이나 시학의 저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철학자는 위대한 문학자이기도 했다. 흔히 철학자들은 독자적인 문학관을 수립한 문학비평가이면서 그들의 사상을 문학의 형식으로 빌어 표현한 문학가이기도 한 것이다.

7. 논의의 마무리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학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를

27) Chassang은 문학 일반론의 논문을 쓰는데 요구되는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1) 커다란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 (2) 사실을 논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3) 전체적인 방향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4) 논문이 새로운 내용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해야 한다. 조동일, 주 (15)의 책 90 쪽에서 재인용.

28) “문학연구의 방법은 방법의 원리에 작용하는 철학, 방법을 추출하고 적용하는 대상인 작품, 방법의 당면한 문제점 및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는 사회적 상황적 상황을 떠나서 모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의 원리에 작용하는 철학은, 문학을 아무리 순수하게 문학으로만 다룬다고 주장해도 배제할 수 없다.” 조동일, 주 (15)의 책, 26~27 쪽.

다룬다는 점에서, 철학은 보편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초학이나 보편학으로서의 철학에 대하여, 제 분과학문의 성과를 종합한 학문 체제로서의 철학은 종합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초학으로서의 철학과 종합학으로서의 철학은 분과학문의 발전에 철학적 체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한 분과학문의 성과가 나온 뒤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일반화하는 원리를 이끌어내는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철학과 인접학문의 발전은 상호 순환관계를 지니면서 제휴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연구는 철학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궁극적으로는 철학적인 문제 해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자는 좁게는 논리학자로 넓게는 철학자를 견해야 한다. 이는 곧 어느 정도 철학자가 되어야 문학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학자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삶의 문제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명할 수 있어야 하며, 철학적인 차원에서 문학의 과제를 따지고 밝힘으로써 문학연구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자는 문학연구의 이론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문학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철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철학을 개척하는 데 철학자들과 더불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철학적인 인식의 문학적 표현이 문학작품의 예술성을 크게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연구방법의 철학적 이론화는 문학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높이 획득해 주는 것이다.